■ 민족문화연구 제89호(2020.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43-269.
http://doi.org/10.17948/kcs.2020..89.243

연행록 소재 動物戱 기사 연구*

안순태(安淳台)**

목 차

1. 서론
2. 동물희의 연행 양상
3. 동물희에 대한 조선 사행원의 인식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사행원들에게 주요한 볼거리였던 動物戱 기사를 체계화, 그 演行 양상을 분석하고 動物戱를 관람한 조선 사행원들이 그에 대해 어떤 인식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핀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후기 연행록에 실려 있는 동물희 기록의 특징을 개관하고 동물희 가운데 빈번하게 확인되는 猴戱와 虎戱를 중심으로 그 演行 양상을 살폈다.

幻戱에 대한 서술 태도가 그러하듯 동물희에 대해서도 연행록 撰者들은 대개 신기하다는 단편적 반응을 보이며 그 演行 양상을 묘사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동물희에 대한 소감을 기록한 것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동물희에 참여하는 동물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동물희에 참여한 맹수들이 野性을 상실한 데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동물희에서 사람 흉내를 내는 동물을 두고 사람답지 못한 이

* 이 논문은 2020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울산대 국어국문학부 조교수.

들을 비판한 것이다. 조선후기 연행록에 보이는 동물희 기록에서 우리는 인간중심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는 반려동물 수가 급증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어: 動物戱, 猴戱, 虎戱, 步馬之戱, 洪大容, 金直淵, 金正中, 野性.

1. 서론

조선 후기에 어떤 거지가 시장에서 원숭이 재주를 보여주며 구걸하였다. 거지는 원숭이를 몹시도 사랑해 채찍 한 번 든 적 없었으며 아무리 지친 날이라도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면 언제나 원숭이를 어깨에 올려놓고 갔다. 거지가 병들어 죽자 원숭이는 울면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원숭이가 사람들을 보고 울면서 구걸하여 거지를 장사 지냈는데, 거지를 화장하던 나무가 맹렬하게 타올라 거지의 시체가 거의 다 탔을 무렵 원숭이는 구슬픈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고 불에 뛰어들어 숨을 거두었다.[1] 趙秀三의 『秋齋紀異』에 전하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없었는데 조선 후기 燕行 과정에서 이른바 猴戱라 하는, 원숭이를 이용한 공연을 보고 원숭이를 우리나라로 들여왔다. 18세기 한양의 풍경을 묘사한 朴齊家의 시에서 "조그마한 원숭이는 부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사람들의 뜻에 따라 절도 잘하고 꿇어 앉기도 잘하네."[2]라 읊은 것도 그렇고 연행사를 따르던 상인이 북경에서 원숭이를 사 우리나라로 들여오던 때의 에피소드를 적고 있는 李德懋의 기록[3]을 보면 이미 18세기 이전부터 중국에서 원숭이를 들여와 공연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李時弼(1657-1724)이 『謏聞事說』에서 적고 있는, 원숭이 길들이는 법을 보면 '원숭이를 말뚝에 올려놓고 채찍으로 때리면 열흘에서 한 달 사이에 길들일 수 있다'라 하고 있으니[4]

1) 趙秀三, 「紀異」, 『秋齋集』. "丐子弄猴乞於市, 愛猴深, 未嘗一擧鞭. 暮歸駄于肩, 雖憊甚不改也. 丐病且死, 猴泣涕不離側. 飢死將火葬, 猴見人泣拜乞錢, 人多憐之. 及薪火方熾, 丐屍半化, 猴長慟一聲, 遂赴火死之."
2) 朴齊家, 「城市全圖應令」, 『貞蕤閣集』 三. "小猴眞堪哨婦孺, 受人意旨工拜跪."
3)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50 耳目口心書 三. "正朝使, 自北京歸時, 賈人沽母猿而來, 方娠也. 旣入我境, 悲而躑躅, 賈人寬慰之. 中途生子, 人納于袖中, 行時出使乳之."

원숭이 공연의 신기함 너머에는 어두운 구석도 있었던 것이다. 조수삼이 전한, 거지와 원숭이 이야기는 하나의 미담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본고는 조선후기 연행록에 보이는 動物戱 기사를 분석, 당시 조선 사행원들이 자주 관람했던 동물희 종류와 공연 양상, 그리고 그에 대한 조선 사행원들의 인식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雜技의 일종으로 '동물놀음', '짐승 길들이기'[馴獸] 등으로도 불리며,[5] 사람의 뜻대로 동물을 움직이게 하여 구경거리로 삼는 동물희는, 그 대상으로 삼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개나 원숭이 등을 이용한 '獸戱', 거미나 귀뚜라미 등을 이용한 '蟲戱', 참새나 앵무새 등을 이용한 '禽戱', 물고기나 거북이 등을 이용한 '水族戱' 등으로 나눌 수 있다.[6] 본고에서는 이 중 연행록에서 가장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는 獸戱를 중심으로 살피도록 한다.

중국의 전통 잡기 중 하나인 동물희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연구가 되어 왔는데, 주로 동물 기사 전반에 대해 살피는 과정에서 동물희 연행 양상이 간간이 소개되기도 했다. 동방한문학회에서 2014년부터 3회에 걸쳐 '중세의 동물에 대한 인식과 문학적 형상'이라는 기획 주제로 다양한 동물들이 문학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핀 바 있는데,[7] 그 가운데 신익철 교수의 「연행록에 보이는 동물 기사의 유형과 특징」[8]이 본고의 주제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코끼리와 낙타, 천주당에서 접한 서양 동물들, 원숭이와 개의 곡예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중 동물 곡예에 대해서는 金昌業, 洪大容, 金景善, 金直淵의 동물희 관람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연행록에서의 동물희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연행록의 雜技 기사를 다루면서 동물희를 간단히 소개한 연구[9]도 주목할 만하다. 이

---

4) 李時弼, 『소문사설, 조선의 실용지식 연구노트』, 백승호・부유섭・장유승 역, 휴머니스트, 2011, 208면.

5) '동물놀음'이라는 명칭은 안상복 교수가, '짐승 길들이기'는 刘峻骧이 쓴 명칭이다. 안상복, 『중국의 전통 잡기』, 서울대 출판부, 2006; 刘峻骧, 『中国杂技史』, 文化艺术出版社, 1998.

6) 안상복, 앞의 책, 9장 참조.

7) 이 기획 주제 논문들은 『동방한문학』 61집 내지 63집에 수록되어 있다.

8) 신익철, 「연행록에 보이는 동물 기사의 유형과 특징」, 『동방한문학』 제62집, 동방한문학회, 2015.

9) 안상복, 「燕行錄의 雜技 관련 記事 연구」, 『중국문학』 제53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7; 이홍식, 「북경 유리창의 공연예술」, 『한국한문학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11.

연구들에서는 연행록에 기록된 동물희를 폭넓게 소개하는가 하면 사행원이 유리창에서 목격한 동물희와 그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살피고 있다. 연행록에 수록된 동물희가 개략적으로 소개되었고 그 동물희에 대한 기록자의 인식의 일단도 선행연구에서 살핀 바 있지만, 여전히 동물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기록자의 인식에 대해서도 더 깊이 살필 여지가 있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연행록 소재 동물희의 종류와 공연 양상,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자의 시각 내지 인식을 체계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2. 동물희의 연행 양상

1) 동물희 기사 개관

인위적으로 훈련된 동물들의 재주를 선보이는 動物戱는 대접 돌리기와 같은 技藝, 갈기갈기 찢은 종이를 입에 넣었다가 감쪽같이 이어서 꺼내는 幻術과 같은 '雜技'의 일종이다. 일찍이 안상복 교수는 연행록에 기록된 동물희를 폭넓에 개관한바, 9종의 동물에 대한 18인의 연행록 기록을 바탕으로 동물별 기록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10] 다음 목록은 기존에 소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 폭넓게 조사하여 17세기 중반 인평대군으로부터 19세기 후반 李承五에 이르기까지 24인이 9종의 동물들이 출현한 동물희를 관람하고 기록한 36건의 연행록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순번	撰者	文獻名	관람 시기	동물 종류	관람 장소
1	李濬	燕途紀行	1656.10.18.	곰	朝鮮館
2	李元禎	歸巖集	1670.7.27.	원숭이	察院
3	李元禎	歸巖集	1670.8.15.	원숭이	朝鮮館
4	金錫胄	息庵集	1683.1.(추정)	원숭이	未詳
5	金昌業	燕行日記	1712.12.12.	원숭이, 개	察院
6	李義鳳	北轅錄	1760.12.14.	원숭이	三臺子

10) 안상복, 앞의 글, 2007.

7	李義鳳	北轅錄	1761.1.9.	원숭이, 개	朝鮮館 인근
8	李義鳳	北轅錄	1761.1.26.	원숭이	朝鮮館
9	洪大容	湛軒書	1766.2.18.	원숭이, 개(발발이), 양	朝鮮館
10	李押	燕行記事 下	1778.1.9.	호랑이	朝鮮館
11	李押	燕行記事 下	1778.1.25.	원숭이	朝鮮館
12	朴趾源	熱河日記	1780.8.	원숭이[山都]	北京
13	朴趾源	熱河日記	1780.8.	코끼리	北京
14	朴趾源	熱河日記	1780.8.	납취조	熱河
15	鄭存謙	燕行日記	1783.1.(추정)	양	朝鮮館
16	金正中	奇遊錄	1792.1.8.	곰, 호랑이, 원숭이	琉璃廠
17	李喜經	雪岫外史	1795.1.(추정)	호랑이	琉璃廠
18	李基憲	燕行日記 下	1802.1.20.	원숭이, 개, 양	朝鮮館
19	李海應	薊山紀程	1803.12.27.	원숭이, 개(발발이)	朝鮮館
20	李海應	薊山紀程	1804.1.	뱀	未詳
21	未詳	赴燕日記	1829.1.(추정)	원숭이	未詳
22	韓弼教	隨槎錄	1831.10.22	원숭이	朝鮮館
23	韓弼教	隨槎錄	1831.9.18.	곰	薊州
24	金景善	燕轅直指	1833.1.3.	원숭이	崇文門
25	金景善	燕轅直指	1833.1.7.	원숭이, 개	朝鮮館
26	金景善	燕轅直指	1833.1.21.	곰	朝鮮館 인근
27	任百淵	鏡浯遊燕日錄	1837.1.3.	원숭이, 곰	曹公舘
28	任百淵	鏡浯遊燕日錄	1837.1.25.	쥐	朝鮮館 인근
29	李有駿	夢遊燕行錄	1849.1.3.	원숭이, 곰	曺老宮
30	李有駿	夢遊燕行錄	1849.1.10.	원숭이, 개(발발이)	朝鮮館
31	姜時永	輶軒三錄	1853.6.27.	곰	朝鮮館
32	徐慶淳	夢經堂日史	1855.11.9.	곰	白旗堡
33	姜長煥	北轅錄	1856.1.13.	쥐	朝鮮館
34	金直淵	燕槎日錄	1859.1.23.	원숭이, 개	朝鮮館
35	李容學	燕薊紀略	1877.1.4.	곰	朝鮮館(추정)
36	李承五	燕槎日記	1887.6.6	곰	朝鮮館

〈표〉 연행록 소재 동물희 기록 일람.

위 목록을 기반으로 연행록에 기록된 동물희의 몇 가지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연행록의 동물희 기록은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전반기에는 원숭이만 단독으로 공연하는 사례가, 후반기에는 여러 동물들이 함께 공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공연에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가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이전에 흔히 보이던 원숭이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곰 등의 공연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된다. 셋째, 두 종류 이상의 동물이 함께 공연할 때에는 대개 '원숭이-개'의 조합을 보인다는 점이다. 넷째, 기록자들은 대부분 북경, 특히 조선관소에서 동물희를 관람하였다는 점이다.

한 차례의 공연에서 技藝와 幻術이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했듯이[11] 동물희도 환술과 함께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환술이 끝난 후 곧바로 동물희가 이어진다든가 기예와 동물희가 함께 펼쳐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12] 물론 환술사들은 환술사들끼리 무리 지어 다니고 동물희 戱者는 환술사들과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예사였는데, 때로는 이들 환술사와 戱者가 함께 다니며 공연을 하기도 했다.

사행원들은 유리창 등 거리에서 동물희를 관람하기도 하였지만, 환술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주인이자 동물희를 일삼는 주체인 戱者들이 옥하관으로 찾아와 공연하는 일이 많아 주로 옥하관에서 동물희를 관람하였다. 대개 환술사들과 동물희 戱者들은 조선 사행원이 북경에 도착한 후 여독이 풀리고 심리적으로도 여유를 찾을 즈음 으레 옥하관으로 찾아들곤 하였다.

2) 동물 종류에 따른 연행 양상

중국에서 행해지던 동물희에 동원된 동물들은 말, 개, 고양이, 두꺼비, 개구리, 고슴도치, 거미, 귀뚜라미, 닭, 구관조, 앵무새, 거북이, 잉어, 금붕어, 뱀 등 그 종류가 무척 다양했다. 그러나 연행록에 등장하는 동물은 몇 종으

11) 졸고, 「幻戱의 演行 양상과 흥미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78집, 한국한문학회, 2020, 129-135면.
12) 李押, 『燕行記事』 亨 戊戌(1778) 正月初九日條; 金正中, 『奇遊錄』 壬子(1792) 正月初八日條.

로 한정되어 있다. 그중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원숭이, 개, 호랑이다. 본고에서는 연행록에서 가장 빈도 높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동물 공연을 중심으로 그 공연 양상과 그에 대한 기록자의 시선을 살피도록 한다.

(1) 猴戱

연행록에서 가장 흔히 확인할 수 있는 동물희는 猴戱, 즉 원숭이 공연이다. 18세기경 조선에도 원숭이를 들여오기는 했지만, 조선 사행원에게 원숭이는 여전히 낯선 동물이었다. 반면 중국에서는 원숭이가 비교적 흔한 동물이었고 생김새가 사람과 비슷해 원숭이를 이용한 여러 종류의 공연이 행해졌다. 연행록에 보이는 猴戱의 공연 양상은 다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筋斗, 즉 재주넘기다. 李義鳳이 1760년 사행길에 瀋陽의 三臺子 路上에서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는 胡人을 만났는데, "쇠줄로 목을 묶고 소리를 질러 지시를 해서 구르게 하거나 筋斗를 시켰다. 이 밖에 다른 기술은 없었으니, 대개 새로 길들인 것이었다."라 하여 원숭이 재주를 본 일을 기록하고 있다. 막 길들이기 시작한 원숭이는 재주넘기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니,[13] 재주넘기가 猴戱의 초보적 단계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높은 장대를 설치해 원숭이가 그 위를 오가며 묘기를 부리는 공연이다. 구경꾼들은 원숭이가 높은 장대 사이를 재빠르게 오가거나 장대에 매달려 있는 것에 위태로움과 흥미를 동시에 느끼게 된다.[14] 셋째, 원숭이가 사람 분장을 하고 사람 흉내를 내는 것이다. 이는 연행록에 기록된 猴戱 가운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공연 형태로, 金堉(1580-1658)·李元禎(1622-1680)·金昌業(1685-1721)·李海應(1775-1825)·金景善(1788-1853)·李有駿(1801-1867)·韓弼教(1807-1878)·金直淵(1811-1884) 등의 연행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중 1803년 북경 옥하관에서 猴戱를 관람한 李海應은 공연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13) 李義鳳, 『北轅錄』 辛巳(1761) 正月二十六日條. "買賣人五八, 牽一小猿而來, 使之筋斗不能."

14) 金直淵, 『燕槎日錄』 己未(1859) 正月二十三日條. "戱者立三丈竿, 而上垂長條, 猢猻攀條而上, 緣竿而下, 疾如飛鼯. 從竿頭, 翻身作優戱, 又以一手持竿, 而委身於空, 觀者危之, 莫不毛竦骨酸, 而戱者從而亂攪之, 猢猻懸於半空, 回回旋旋, 惴惴乎, 危哉危哉. 移時後乃止, 一瞥已下, 立平地, 左顧右眄, 傍若無人."

> 또 원숭이 한 마리는 붉은 저고리에 푸른 바지를 입었으며, 머리에는 여자 머리처럼 꾸민 가면을 쓰고 발에는 오랑캐 신을 신고서 궤짝 위에 높이 앉았으니, 두세 살 된 어린아이와 흡사하였다.
>
> 한 사람이 징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 원숭이 한 마리가 제 스스로 궤짝 뚜껑을 열고 모자를 꺼내 썼다. 한 번 열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는데, 금방 썼다 벗었다 하니, 그 갓이나 모자의 종류가 하나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원숭이는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꿇어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였으며, 더러는 창을 들고 찌르는 시늉도 하고, 더러는 지팡이를 짚고 곱사등이 흉내를 내기도 하였다.15)

원숭이가 사람처럼 저고리며 바지를 입고, 창으로 찌르거나 지팡이를 짚고 걷는 등 사람 흉내를 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원숭이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뿐더러 사람 복색을 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볼거리였다.

원숭이는 단독으로 공연하기도 했지만 그 주인들이 원숭이를 개(발발이), 양과 함께 데리고 다니며 공연하는 사례도 많았다. 원숭이는 개보다 주로 양과 함께 묘기를 펼쳤는데, 그 묘기란 대개 원숭이가 양 위에 올라타고 질주하는 것이었다. 李基憲의 다음 기록에서 그 공연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이에 한 胡人이 양을 끌고 나오니 원숭이가 그 위로 뛰어올라 中門을 나서서 열 걸음 남짓 가다가 도로 문으로 내달려 들어왔다. 胡人 하나가 이에 양에게 콩을 먹이며 끌고 나갔다가 도로 들어왔다. 양은 콩만 보면 질주하였는데 원숭이 또한 [양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하기를 서너 차례 하고 그쳤다.16)

戱者가 콩을 미끼 삼아 양을 유인하면 원숭이가 그 위에 올라탄 채 질주하는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위 이기헌의 기록에서처럼 양을 내달리게 하기 위해 콩으로 양을 유인하기도 하였지만, 원숭이가 양 위에 올라탄 채 채찍질을 하는 등 스스로 양을 몰고 다니는 예도 많았다. 원숭이는 양 위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위에서 누웠다가 일어나기도 하며

---

15) 李海應, 『薊山紀程』 卷3 癸亥(1803) 十二月二十七日條. "又以一猿, 穿紅衣靑袴, 頭着假面女髻, 足躡胡鞋, 而高坐一櫝上, 恰如數三歲孩兒矣. 一人鼓鑼叫聲, 則一猴自開櫝, 出帽而着之. 一開而一着, 乍着乍脫, 其冠帽之屬不一. 或作人步, 或跪或臥, 或持槍作擊刺狀, 或扶笻作傴僂狀."

16) 李基憲, 『燕行日記』 下 壬戌(1802) 正月二十日條. "於是, 一胡牽羊而至, 則猿乃躍登其上, 出中門十餘步, 還又馳入門. 一胡乃持豆飼羊, 卽又牽出其還入也. 羊輒見豆疾馳, 而猿亦不墜. 如是三四次而止."

때로는 달리는 양을 뒤쫓아가 번쩍 올라타는 묘기를 선보이기도 했다.[17] 李海應도 1803년에 옥하관에서 본 猴戱에 대해 "가죽 고삐로 원숭이의 목을 매었는데 양을 몰면서 원숭이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르게 하면, 곧 손으로 고삐를 붙잡고 양의 등에 뛰어올라 타고 내달린다."[18]라 묘사하고 있고, 李有駿 역시 1849년 옥하관에서 유사한 공연을 관람하였다.[19] 이렇게 원숭이가 양의 등에 올라타 질주하는 재주를 선보이는 공연을 '步馬之戱', 즉 말 타는 놀이라 하는데, 아예 양 위에 안장을 얹고 원숭이에게 갑옷을 입힌 채로 다니면서 步馬之戱를 선보이는 일도 있었다.[20] 步馬之戱는 18세기 내지 19세기에 북경에서 흔하게 행해지던 동물희였던 것이다.

조금 다른 맥락에서, 필자는 이 步馬之戱가 이루어지던 양상을 보면서 문득 임진왜란 때의 이른바 원숭이 부대가 떠올랐다. 이 원숭이 부대는 明의 援軍 楊鎬(?-1629)의 예하에 있었는데, 1597년 素沙(지금의 천안) 전투에서 말을 타고 적진을 교란하여 왜적을 크게 무찔렀다는 기록이 『택리지』에 전한다. 당시 전란에서 활약한 원숭이 기병대의 실체에 대해서는 안대회 교수가 자세히 밝힌 바 있어[21] 여기서 자세히 논하지는 않지만, 양 위에 올라타고 내달리는 원숭이가 동물희로 흔하게 공연되었음을 상기해 보아도 원숭이 기병대 이야기를 허황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원숭이가 사람 복장으로 '창을 찌르는 시늉'을 하기도 하고,[22]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휘두르는데, 그 날래고 민첩함은 사람이 따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23] 훈련시킨 원숭이가 戰場에서 갑옷과 투구를 갖춘 채 창을 들고 칼을 휘

17) 洪大容, 「燕記」, 『湛軒書』 外集 卷10. "最後戴胡帽騎羊馳走, 或臥或立, 如在平地. 或鞭羊先走, 必飛走超乘."
18) 李海應, 『薊山紀程』 卷3 癸亥(1803) 十二月二十七日條. "以韋轡繫猴頸, 駈羊而使之隨, 則輒手握其轡, 躍騰羊背, 騎而馳走."
19) 李有駿, 『夢遊燕行錄』 己酉(1849) 正月初十日條. "更着甲冑而人立, 胡牽羊近前, 則猴卽躍登其背, 疾馳十餘步而下."
20) 李義鳳, 『北轅錄』 1761年 正月初九日條. "適有一胡, 牽具鞍白羊被甲赤猿而來, 將呈步馬之戱."
21) 안대회 교수는 이 원숭이 騎兵이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었음을 『亂中雜錄』, 孫起陽의 일기, 『世傳書畫帖』의 「天朝將士餞別圖」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안대회, 「소사전투에서 활약한 원숭이 기병대의 실체」, 『역사비평』 통권124호, 역사비평사, 2018 참조.
22) 李海應, 『薊山紀程』 卷3 癸亥(1803) 十二月二十七日條. "一人鼓鑼叫聲, 則一猴自開櫝, 出帽而着之 (…) 或作人步, 或跪或臥, 或持槍作擊刺狀."

두르며 말을 달리는 것도 無稽한 일만은 아니라 하겠다. 실제로 李有駿은 『몽유연행록』에서 步馬之戱를 관람하고는 "예전에 우리 宣祖 임금 때 丁酉倭亂이 일어났는데, 楊經理(楊鎬)가 弄猴 수백 騎를 素沙橋 아래 매복시켜 놓았다가 왜군의 진영을 뚫게 하고, 이어서 鐵騎로 유린하여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24] 북경에서 원숭이로 하여금 갑옷과 투구를 갖추게 하여 양 위에 타고 내달리는 것을 목격한 李有駿은 자연스럽게 壬辰, 丁酉의 亂 당시 원숭이 기병대를 떠올렸던 것이다.

(2) 虎戱

호랑이는 주변에서 쉽게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그 포학한 본성으로 인해 길들이기 또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1794년 북경에 간 李喜經은 어느 날 琉璃廠 인근을 돌아보던 중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에워싸고 구경하는 것을 목격한다. 시종하던 자가, 호랑이가 서서 춤을 춘다고 하자 이희경은 믿을 수 없다며 '그건 필시 사람이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쓴 것'일 거라 한다.[25]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호랑이가 서서 춤을 춘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던 것이다.

흔치는 않지만 몇몇 연행록에서 호랑이 공연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원명원의 虎圈, 즉 호랑이 우리를 구경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虎圈 바깥에서 재주를 부리는 호랑이를 목격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李押(1778), 金正中(1792)의 연행록과 李喜經(1795)의 『雪岫外史』에서 虎戱 관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淸代에 와서야 출현한 虎戱는,[26] 대체로 두 가지 레퍼토리가 있었다. 호랑이가 박자에 맞추어 춤을 추거나 창을 휘두르는 것, 그리고 戱者가 호랑이

23) 洪大容, 「燕記」, 『湛軒書』 外集 卷10. "猴進而抽櫃中衣帽, 穿戴如人, 叩頭拜舞 (…) 或兜鍪鐵鎧, 使鎗試釰, 驍敏絶人."
24) 李有駿, 『夢遊燕行錄』 己酉(1849) 正月初十日條. "昔我宣廟丁酉倭亂, 楊經理挾弄猴數百騎伏於素沙橋下, 貫穿倭陣, 繼以鐵騎蹂之, 遂得大捷."
25) 李喜經, 『雪岫外史』. "甲寅冬, 余在燕館, 暇日出遊琉璃廠. 路上衆人圍住, 疑其中有異, 命從者先往觀之. 還報曰: '有虎, 能起舞, 可一觀也.' 余笑曰: '是必人蒙皐比也, 豈市虎而人不避也.' 曰: '虎能馴, 無足畏也.'"
26) 刘荫柏, 『中国古代杂技』, 北京: 商务印书馆, 1997, 173면.

입에 머리나 팔뚝 등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레퍼토리는 虎戱 관람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虎戱를 가장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다음 李喜經의 기록이다.

> 내가 구경꾼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았더니, 과연 큰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무서워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다. 호랑이 주인에게 돈을 치르면서 묘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주인이 호랑이 앞에 창을 세우고 겨드랑이를 당겨 일어나게 하였다. 그러나 호랑이는 면상을 찌푸리고 뱃살을 축 늘어뜨린 채 꿈쩍도 하지 않다가 여러 차례 일으킨 뒤에야 사람처럼 일어나서 선 채로 춤을 추었다. 호랑이는 발톱으로 창을 잡아 휘두르고 주인은 북채를 잡아 북을 치는데 둥둥 북소리에 덩실덩실 춤추는 것이 모두 절도에 맞았다.
>
> 얼마 후 호랑이는 땅에 창을 내던지고 또다시 웅크리고 앉았다. 주인이 몸을 숙여 호랑이 턱 밑으로 들어가서는 모자를 벗고 자신의 머리를 호랑이 아가리 속에 넣자, 호랑이가 아가리를 벌려 주인의 머리를 물었다. 흰 이빨과 붉은 혀가 광대뼈와 뺨에 닿을 무렵, 주인은 도리어 덜 들어가지 않았을까 염려하여 두 손으로 호랑이 귀를 잡고 있는 힘을 다해 들이밀었다. 호랑이가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머리를 삼켜 주인의 목이 거의 다 들어가고 나서야 주인은 크게 웃으면서 목을 빼내었는데, 마치 머리를 감은 것처럼 호랑이의 침에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구경하는 자들이 모두 넋이 나가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다.[27]

동물희는 대가를 얼마나 치르느냐에 따라 간단한 재주를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재주를 보여주기도 했다.[28] 호랑이가 선보이는 재주 또한 돈이나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서야 볼 수 있었다. 주인이 북을 치자 호랑이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가 하면 창을 잡고 휘두르고 있다. 虎戱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에 펼쳐지는, 주인이 호랑이 입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미는 장면이다. 李押과 金正中도 虎戱 관람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 장면에 대한 그들의 서술은 李喜經의 것에 비하면 단편적이다.[29] 이희경은 호랑이가 주인의 머리를

---

27) 李喜經, 『雪岫外史』, 진재교 외 옮김, 성균관대 출판부, 2011, 68면.

28) 金景善, 「犬猿兩戱記」, 『燕轅直指』 卷4 癸巳(1833) 正月初七日條. "蓋呈戱久速, 一視賞錢多寡云. 一行之外, 隣近鋪人及館外往來行人多入觀, 各收錢以給之, 其人乃負猿牽狗而去."

29) 李押은 이 장면을 "其主脫去其帽, 以赤頭接於虎口, 虎乃出舌舐之. 又納其臂於虎口, 虎又舐之. 又以手擧虎頭, 接其口, 有不忍正視也."라 기록하고 있으며 金正中은 "胡兒脫麻霞羅, 以光光赤頭, 直低入虎口中.

무는 장면이나 주인이 자신의 머리를 호랑이 입 깊숙이 들이미는 장면, 특히 머리를 빼낸 후 주인의 모습을 '마치 머리를 감은 것처럼 호랑이의 침에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는 탁월한 비유를 통해 생동감을 극대화한 서술을 하고 있다.

위 이희경 기록에서 호랑이가 '발톱으로 창을 잡아' 휘두르고 '흰 이빨'이 주인의 광대뼈에 닿을락말락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듯 이희경이 목도한 호랑이는 발톱과 이빨이 그대로 있었던 듯하다. 그런데 호랑이의 포학함을 제어하기 위해 때로는 발톱과 이빨을 잘라내는 일도 있었다.[30] 또 이희경이 본 호랑이는 크기가 크고 뱃살이 늘어져 있으며 행동이 굼떴다는 점에서 크고 늙은 호랑이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李押이 본 호랑이는 높이가 두 자에 길이가 한 발[把]쯤 되는 중호랑이였다고 하니[31] 공연에 동원된 호랑이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았던 듯하다.

(3) 기타 동물희

원숭이나 호랑이 외에 조선 사행원이 연행 도중 동물희에서 본 동물들로는 羊, 개, 코끼리, 곰, 쥐, 뱀, 납취조 등이 있었다. 羊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원숭이와 함께 다니며 '步馬之戱'를 선보였는데, 그 밖에 이른바 '羊上樹'라는 묘기를 펼치기도 했다. '羊上樹'란 양이 걸상에 올라가 사람처럼 서서 박자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이다. 이때 주인은 5층 내지 6층까지 걸상을 차곡차곡 쌓고, 새로 걸상을 쌓을 때마다 양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 춤을 춘다.[32]

양이나 원숭이와 함께 다니며 재주를 부렸던 개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다. 개의 재주를 보이는 것을 狗戱 또는 犬戱라 하였다. 晉

虎避其頭却立, 少無搏噬之意."라 서술하고 있다. 李押, 『燕行記事』 下 戊戌 正月初九日條; 金正中, 『奇遊錄』 壬子 正月初八日條.

30) 金正中, 『奇遊錄』 壬子(1792) 正月初八日條. "亦有馴熊虎猿者, 皆以鉄絲項. 虎則爪牙雖翦, 或閃目開口, 猛氣風生."[밑줄: 인용자]

31) 李押, 『燕行記事』 下 戊戌 正月初九日條. "虎之高爲二尺, 長過一把, 全體色黃, 有長文. 其形如貓, 而可爲中虎."

32) 이러한 '羊上樹' 공연 양상은 鄭存謙의 『燕行日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창숙, 「연행록에 실린 중국 연희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 『한국실학연구』 제20호, 한국실학학회, 2010, 153-154면 참조.

干寶의 『搜神記』나 唐 張鷟의 『朝野僉載』, 淸 徐珂의 『淸稗類鈔』, 淸 沈起鳳의 『諧鐸』에는 사람 말을 하거나 책을 읽고 이해하는 개 이야기가 보이기도 한다.[33]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개를 이용해 행해지던 공연은 주로 쳇바퀴 통과하기였다. 쳇바퀴 여러 개를 문처럼 세워 놓고 주인이 징이나 북을 치면 개가 그 박자에 맞추어 쳇바퀴를 통과하는 것이다.[34] 개가 쳇바퀴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통과하는 것도 흥미롭지만, 이 공연에서 가장 흥미로운 요소는 개가 주인의 명령을 알아듣고 정확히 박자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이었다. 金昌業(1712), 洪大容(1766), 李押(1778), 李基憲(1802), 李海應(1803), 金景善(1833), 李有駿(1849) 등이 기록한 犬戱는 모두 같은 종류의 것으로 개가 사람 신호에 따라 쳇바퀴를 통과하는 것이었다.

한편 코끼리는 중국에서도 희귀한 것이었다. 조선 사행원에게는 더욱 인상 깊은 동물이어서 이 코끼리가 중국의 壯觀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는 했다.[35] 북경에 있던 코끼리는 대부분 국가 소유로, 명나라 때부터 코끼리를 관리하는 기구인 象房이 설치되었으며 코끼리를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象奴를 두었다.[36] 이에 따라 코끼리는 원숭이나 개 등과 달리 개인이 공연에 동원할 수는 없었다. 象房은 宣武門 인근 南堂 건너편에 있었는데, 이곳에는 조선 사행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37] 상방 밖 멀찌감치에서 코끼리를 구경하거나 길에서 우연히 코끼리를 목격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따금 象奴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어 코끼리에게 재주를 부리게 하는 일도 있었다. 燕巖도 象房에 갔다가 象奴에게 부채와 환약 등을 주고서야 코끼리 재주를 볼 수 있었는데, 코끼리 재주라는 것은 머리를 조아리며 앞발을 꿇거나 코를 흔들면서 소리를 내는 정도였다.[38]

---

33) 안상복, 앞의 책, 2006, 335-336면; 韦明铧, 『动物表演史』, 濟南: 山東畫報出版社, 2005, 117-120면.

34) 李基憲, 『燕行日記』 下 壬戌(1802) 正月二十日條. "於是, 盡竪四輪, 對對爲門. 犬則曲腰轉折, 悉穿四輪, 回旋出入, 與鑼聲, 無一參差, 而亦不觸動其輪. 每回一次, 輒臥聞鑼聲, 進行退止. 雖士卒之於將令, 無以加此也."

35) 金正中, 『奇遊錄』 壬子(1792) 正月初一日條. "然他日有人問中原壯觀, 吾必曰象."; 南公轍, 『日記』 二 戊辰(1808) 正月初一日條. "象奴騎其項而運去, 比如屋夾上一拳物, 而其行宛若肉山之運動, 見者莫不稱其英特. 到御路之崇高處鋪氈, 而上其輪, 向端門而出去, 亦一壯觀也."

36) 안상복, 앞의 책, 2006, 343-344면.

37) 徐慶淳, 『夢經堂日史』 4 乙卯(1855) 十二月十八日條.

38) 朴趾源, 「黃圖紀略」, 『熱河日記』. "象房 (…) 叩頭雙跪, 又掀鼻出歎, 如管簫聲. 又塡塡作鼓鼉響, 大約

곰의 재주를 선보이는 熊戱를 보았다는 기록도 적지 않은데, 대개는 단편적인 언급뿐이다. 곰도 맹수이기에 호랑이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이빨이나 발톱을 제거하기도 하고,[39] 철사로 목을 묶거나 코를 뚫기도 하였다.[40] 熊戱에 대한 기록 가운데는 金景善의 「熊戱記」가 가장 자세하다. 곰은 크게 두 가지 재주를 부렸는데, 하나는 사람처럼 서서 돌아다니며 칼춤이니 창춤을 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구나무서는 것이다. 주로 밥이나 떡 등 음식으로 곰을 유인해 공연을 하였다. 쥐를 이용한 鼠戱는, 쥐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춤을 추거나 장애물을 통과하는 모습을 선보이는 것이었다.[41] 연행록에는 또 물레 돌리기, 춤추기, 줄에 거꾸로 매달리기,[42]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기와 같은 종류의 鼠戱를 관람했다는 기록도 보인다.[43] 이상의 동물들에 비해 뱀을 이용한 공연은 상당히 단조로웠다. 뱀은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이라 여겨 개 짖는 소리에 뱀이 반응하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돈벌이를 하는 정도였다.[44] 이 밖에 연암은 열하를 오가는 도정에서 蠟嘴鳥라는, 사람 말을 알아듣는 영리한 새의 공연을 보고 「蠟嘴鳥記」를 남기기도 하였다.

象之巧藝, 在鼻與牙." 徐慶淳도 다음과 같이 유사한 언급을 한 바 있다. 徐慶淳, 『夢經堂日史』 4 乙卯(1855) 十二月十八日條. "觀者持錢畀象奴, 使之獻技, 象必睨視. 象奴多受錢, 而後仰鼻俯首, 嗚嗚出聲. 教跪則跪, 教拜則拜.

39) 金景善, 「熊戱記」, 『燕轅直指』 卷5. "見口中無齒, 蓋拔齒而馴養之也."

40) 李容學, 『燕薊紀略』 光緒3(1877) 正月初四日條. "又以一小熊, 牽置於場中, 而以鐵索絡項, 以鐵環貫鼻."

41) 안상복, 앞의 책, 2006, 363-365면.

42) 任百淵, 『鏡浯遊燕日錄』 丁酉(1837) 正月二十五日條. "晩出館, 門外有架機來者, 架上層層有橫梯竪梯, 機上列置小櫃數十. 小小器械, 不知何名者. 雜錯於其間, 每發一櫃, 各有白鼠堇寸許, 躍出緣梯而上架主. 喃喃數語, 鼠解人意, 或自枷而立舞, 或緣繩而倒懸. 又有數寸繅車, 一鼠踏機, 繅車自轉如風運. 衆鼠各呈一技, 升降梯道, 屈曲縱橫, 自有恒習, 不失其規, 甚可巧異."

43) 姜長煥의 다음 기록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姜長煥, 『北轅錄』 丙辰(1856) 正月十三日條. "仍還館所. 有訓鼠者入來, 植小竿於庭中. 其上係十字竿, 左右又係二橫竿, 其端各設一木筒鑿, 其孔可容一鼠. 中竿設一小機, 又於中竿末端設一機, 若紅傘樣. 其左右各立一童子, 仍編竹爲梯, 垂於竿下, 携出小櫝四五. 其中藏小小五色鼠, 取出一鼠, 以手執之, 指一端木筒, 而擊錚警誓, 則鼠輒緣梯而上, 直入所指之筒, 於左於右, 一不橫走. 又指中機而誓之, 則鼠直入機中輪機不已. 又指中末紅機而誓之, 則輪轉如中機兩機, 一時巡環不止. 仍取木櫝而誓之, 則鼠皆還入櫝中. 奇怪罔狀, 眩人心目, 儘是可笑事也."

44) 李海應, 「畜物」, 『薊山紀程』 卷5. "有豢蛇者. 筐中盛大蜿, 裹以襆, 又於坐處, 植杖于地, 以小狗子, 索項而縶維之. 狗若亂叫回旋, 蛇亦應聲出頭. 有若將咬者, 而人輒以手撫摩嗾而誘之, 蛇亦擧頭旋縮. 蓋蛇非可訓之物, 且非冬節所當有者, 是可異也. 路有觀者, 必三四錢, 然後許之."

3. 동물희에 대한 조선 사행원의 인식

1) 흥미 너머의 연민

동물들은 저마다의 生態에 따라 살기 마련이다. 그런데 동물희에서는 동물들이 사람 말을 알아듣거나 사람과 같은 행태를 보여 관중의 이목을 끈다. 환술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연행록에서는 동물희에 대해 거의 그 演行 양상을 묘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동물희에 대한 감상이나 품평은 좀체 찾아보기 어렵다. 미련하고 흉악스러워 보이는 곰을 길들여 재주를 선보이자 그를 보고 '심히 괴이하다'[怪甚]고 하거나,[45] 개가 바퀴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이하다'[殊可異也]고 하거나,[46] 호랑이와 그 주인이 입을 맞추는 것을 보고는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有不忍正視也]고 하는 등[47] 단편적인 언급을 하고 있을 뿐이며 그 신기함이나 놀라움은 대개 동물희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신기한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면 대개 그 광경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데 여념이 없게 된다. 그 광경을 관조하거나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이 목도한 것 너머의 의미를 찾는 일은 좀체 어려운 일이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동물희를 관람하고 그에 대한 감상을 기록한 예가 적은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동물희에 동원된 동물들 상당수가 학대에 가까운 방식으로 길들여졌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원숭이를 말뚝에 올려 놓고 채찍질하면 길들일 수 있다는 李時弼의 기록, 곰이나 호랑이 등 맹수를 제어하기 위해 그 주인들이 동물의 발톱을 깎거나 이빨을 뽑기도 하고 코를 뚫기도 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 있다. 남공철은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적고 있는데, 이 또한 학대에 가까운 것이었다.

>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만 근이나 나가는 큰 바위를 땅에 묻고

45) 李澹, 『燕途紀行』 下 丙申(1656) 十月十八日條.
46) 金景善, 『燕轅直指』 卷4 癸巳(1833) 正月初三日條.
47) 李押, 『燕行記事』 下 戊戌(1778) 正月初九日條.

> 그 가운데에 짧은 쇠기둥을 세운 뒤 쇠줄로 그 바위에 묶는다. 그리고는 코끼리 앞다리 하나를 쇠기둥에 묶는다. 길들이는 자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긴 대나무를 곧추들고 코끼리 앞으로 뛰어올라 다급한 소리로 성내 꾸짖으면서 내리치는 시늉을 하면 그 큰 놈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몸을 움직여 피하는데 그 모양이 참 가관이다. 이미 길들여진 놈은 사람을 보면 스스로 처음 공물을 바치러 온 자처럼 하는데, 사람만 보면 번번이 놀라 피하는 시늉을 하며 눈짓을 하고 콧김을 불면서 몸을 움직여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그 모양이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다.[48]

꿈쩍도 않는 쇠기둥에 코끼리 다리를 매어 놓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호통을 치며 나무로 때릴 듯 겁박하여 코끼리를 길들인다는 것이다. 쇠기둥에 다리가 매여 거동에 제약을 받는 데서 오는 무력감, 거기에 더해 호통과 겁박으로 인한 불안 증세는 고스란히 코끼리 몫인 것이다. 동물을 길들이는 과정은 좀처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다. 실제 공연 도중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선 1766년 연행 당시 옥하관에서 동물희를 관람한 洪大容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대용은 발발이와 羊, 원숭이가 등장하는 동물희를 관람하였다. 이 동물들을 이끌고 옥하관에 들어선 戲者는 먼저 발발이로 하여금 바퀴를 통과하게 하는 묘기를 선보였다. 작은 징을 치면서 발발이를 꾸짖으며 바퀴를 통과하게 하였는데, 그렇게 하기를 몇 차례 되풀이하니 발발이가 쭈그리고 앉아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주인은 채찍을 휘두르며 꾸짖어 발발이를 다시 일어나게 하였는데, 그 광경을 본 홍대용은 발발이가 '겁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근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고 적고 있다.[49] 홍대용은 그저 발발이가 박자에 맞추어 바퀴 통과하는 것을 신기해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피곤함', '두려움', '근심'과 같은 발발이의 고충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동물을 그저 사람에게 부림을 당해 마땅한 하찮은 존재로 보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림

48) 南公轍, 『日記』 第2册 戊辰(1808) 正月初九日條, 張54b-張55a. "其御之之法, 用万斤巨石, 沒地而埋, 中植短鐵柱, 以鐵索鎖. 其前一足, 繫於柱. 御者有不如意, 則把起長竹竿, 跳躍向前, 疾聲怒叱, 爲揑觸之狀, 則大物觳觫然, 動身畏避, 其狀極可觀. 其已馴者, 見人自若其新貢來者, 見人則輒有驚揚之狀, 目挑鼻噓, 動身不定, 其狀甚畏.

49) 洪大容, 「燕記」, 『湛軒書』 外集 卷10. "鼓小鑼, 呼勃勃而叱使之, 勃勃由圈機, 出入回旋, 低頭徐行, 皆有節度. 數回, 或蹲坐而示憊, 使之者揮鞭而叱之, 卽黽勉從命, 如怕如愁, 眞物妖也."

을 당하는 동물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발발이 공연이 끝나고 원숭이 공연이 이어졌다. 원숭이가 궤짝 속에서 옷과 모자를 꺼내 착용하고 때로는 지팡이를 짚고 노인 행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朝服을 입고 官人 흉내를 내다가는 羊을 타고 달리는 묘기, 이른바 '步馬之戱'를 선보이기도 했다.

> 최후에는 胡帽를 쓰고 양을 타고 달리는데,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하기를 평지에 서처럼 하였다. 또 양을 채찍질하여 먼저 달리게 한 후 나는 듯이 달려가 뛰어 올라타기도 하였다. 다만 한 번 하고 나면 반드시 손을 모아 쉬게 해달라고 애걸을 하였다. 주인이 들어 주지 않고 채찍을 내리치며 조금도 틈을 주지 않으면 놀라서 두려워하며 감히 명령을 어기지 못하니, 보기에 몹시도 가련하였다.[밑줄: 인용자][50]

원숭이가, 달리는 羊 위에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거나 양을 쫓아가 올라타는 步馬之戱를 한 번 하고 나서는 지쳐 쉬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주인은 쉴 틈을 주지 않고 채찍을 내리치며 공연을 계속하라고 닦달하고 있다. 홍대용은 그러한 원숭이의 처지를 몹시도 가련히 여기고 있다. 홍대용은, 사람의 입장에서 物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物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物이 귀하지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나 物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人物均의 관점을 보유하고 있었다.[51] 또 그는 鳥獸와 魚鼈이 제 마음대로 살고 草木과 金石도 그 몸을 보전하는 太和의 세상을 이상향으로 삼기도 했다.[52] 太和의 세상은 곧 '모든 존재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화기애애함을 유지하는 태평한 세상'이다.[53] 체험의 기록인 연행록에서 곧바로 홍대용의 농익은 사유를 확인하려는 것이 자칫 무리한 것으로 비칠 수 있지만, 홍대용이 이처럼 동물들의 고통을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은 위와 같은 평소 사유에 얼마간 빚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0) 洪大容, 「燕記」, 『湛軒書』 外集 卷10. "最後戴胡帽騎羊馳走, 或臥或立, 如在平地. 或鞭羊先走, 必飛走超乘. 但一試之後, 必拱手乞休. 使之者鞭打不少貸, 驚懼不敢違, 見之殊可憐."

51) 洪大容, 「毉山問答」, 『湛軒書』 卷4. "以人視物, 人貴而物賤, 以物視人, 物貴而人賤, 自天而視之, 人與物均也."

52) 洪大容, 「毉山問答」, 『湛軒書』 卷4. "邃古之時, 專於氣化, 人物不繁, 鍾稟深厚, 神智淸明, 動止純厖. (…) 鳥獸魚鼈, 咸遂其生, 草木金石, 各葆其體. 天無淫沴之灾, 地無崩竭之害, 此人物之本, 眞太和之世也."

53) 박희병, 「홍대용 사상에 있어서 物我의 상대성과 동일성」,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290면.

한편 金直淵(1811-1884)은 1859년 북경 玉河館에서 원숭이와 개가 등장하는 동물희를 관람한 일이 있었다. 육십 된 노인처럼 노쇠한 원숭이에게 주인이 재주를 부려 보라고 하자 말을 듣지 않으니 주인은 채찍질을 하였다. 그러자 원숭이가 갑자기 채찍 끝을 잡더니 앞발을 모으고 우는 아이처럼 행동하고서야 주인이 웃으며 노여움을 풀고 채찍 때리기를 그만두었다.[54] 김직연은 뒤이어 개 공연도 보게 되는데 이때 한 켠에 있던 조금 전 주인의 채찍 앞에서 앞발을 모으고 우는 아이처럼 행동한 그 원숭이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한 사람이 작은 북을 둥둥 치자 개가 북 치는 것을 힐끗힐끗 보더니 쟁반을 따라 돌았다. 그러다 북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여 주둥이로 쟁반을 미는데, 그것이 박자에 딱 들어맞았다. 戱者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구경꾼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해지자 원숭이가 문득 눈썹과 콧잔등을 찡그렸다. 그 표정이 서글픈 듯 노여운 듯했다.[55]

북소리 장단에 맞추어 주둥이로 쟁반을 미는 개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 김직연은 한 켠에 있던 원숭이에 주목한다. '눈썹과 콧잔등을 찡그렸다'는 것은 원숭이의 심기가 편치 않아 보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김직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표정이 서글픈 듯 노여운 듯했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원숭이의 이러한 표정은 주인의 뜻대로 공연을 수행하여 관객의 환호를 받는 개를 향한 것일 수도 있고 동물들이 억지로 행하는 공연에 환호하는 관중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김직연은 동물희에 동원된 동물들의 고충을 간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관중들이 동물들의 묘기를 신기해 하고 그것에 환호하고 있을 때, 혹은 동물들의 고충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때, 홍대용이나 김직연 같은 이들은 그 공연의 그늘, 어두운 구석에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

54) 金直淵, 『燕槎日錄』 己未(1859) 正月二十三日條. "有戱猢猻者, 三使同會于副房廊廡下, 列椅而坐. 戱者牽猢猻而來, 貌類人, 朱顔而黃睛, 短小如三歲嬰兒, 衰相如六十老翁. (…) 戱者右引縻左執鞭, 教戱不遵, 則鞭之. 猢猻輒持鞭末, 頓足如啼兒. 戱者回嗔而笑, 然後已也."

55) 金直淵, 『燕槎日錄』 己未(1859) 正月二十三日條. "一人擊小鼓摎摎, 狗頻頻見擊鼓者, 循盘而行. 仰而聽鼓音, 俯以口推盘. 盘旋而合於音節, 戱者賛賞, 觀者哄堂, 猢猻忽揚眉蹙頰, 似愁似怒."

2) 주체성 상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

원숭이나 개처럼 비교적 몸집이 작은 동물들과는 달리 그보다 큰 동물들, 이를테면 곰이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에 대해 연행록 찬자들은 조금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다. 1792년 북경 유리창에서 곰과 호랑이, 원숭이 공연을 본 金正中은 이 동물들의 재주를 간략히 서술한 후 그 소감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 이 세 놈은 저 깊은 숲에서 사는 몸으로, 모두 산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먹고 마신다면 어떤 사람이 감히 너희를 업신여길까마는 이제 사람의 통제를 받아 유순하고 유약하여 마치 땅강아지나 개미, 모기나 파리와 같은 신세가 되었으니 어찌 구태여 잔약해졌는가. 세상에서 영웅 호걸로 칭해지는 자들은 반드시 '곰 같다'거나 '호랑이 같다'고 하고 또 '곰 팔뚝이 그 얼마나 씩씩한가'라 한다. 그런데 세력을 잃고 이웃에 먹을 것을 구걸하여 평범한 사람이나마 되려 해도 되지 못하는 자를 이 세 놈과 비교해 보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것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까닭이다.[56]

야생의 상태에 있다면 곰이나 호랑이, 원숭이 모두 아쉬울 것 없는 존재들이지만, 동물희에 동원된 이 동물들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다. 물론 이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사람의 부림을 받는 길을 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金正中의 눈에는 공연 당시 이 동물들이 마치 '세력을 잃고 이웃에 먹을 것을 구걸하는' 나약한 존재로 비쳐졌던 것이다.[57]

김정중이 사람 손에 길들여져 야성을 잃은 맹수들에 대해 보인 부정적 견해는, 맹수들은 야성을 잃지 않고 용맹함을 지녀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중은 호랑이 우리를 보러 갔다가 우리 안 호랑이가 놀라 크게 포효하며 뛰쳐오르는 것을 보고는 그 용맹함을 칭송하기도 한다. 우리 안에서

---

56) 金正中, 『奇遊錄』 壬子(1792) 正月初八日條. "三者皆深林萬水之身, 當其在山也, 隨意飮啄, 人孰敢侮汝, 而今受人拘制, 柔順荏弱, 如螻蟻, 蚊虻等, 何敢孱也. 世之稱雄豪者, 必曰如熊如虎, 又曰熊臂, 何其壯也, 而失勢則求食乞隣, 欲爲庸夫而不得者, 視三者何異焉. 此所以爲汝悲也."

57) 사람의 통제를 받는 맹수들은, 淸人에게 핍박받는 漢人을 寓意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홍식, 앞의 글, 21면 참조.

고달픈 한 마리 짐승으로 있는데도 산속에서의 위세가 아직 남아 있으니, 만약 다시 산속으로 돌아간다면 그 용맹함이 어떻겠는가 감탄한 것이다.[58]

본연의 야성이 제어된 채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는 맹수를 불쌍히 여기거나 부당하다 생각한 이는 김정중만이 아니었다. 비록 동물희에서 목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호랑이 우리에 갇힌 호랑이를 보고 비슷한 소회를 남긴 이들이 있다. 이희경은 원명원 虎圈에 갇혀 있는 호랑이가 집으로 들어가버려 보이지 않자 관리인에게 지팡이로 호랑이를 건드리게 하였다. 그러자 호랑이가 포효하며 뛰어올라 사람들이 모두 피하느라 감히 호랑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59] 여기서 이희경은 호랑이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낀다. 포효하며 뛰어오르는 호랑이의 용맹함을 보고는 '호랑이는 죽으면 죽었지 용맹함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갇혀 사람에게 먹이를 얻어먹는 상황에 처한 호랑이를 두고는 '형편없는 호랑이'라 한 것이다.[60] 李押 또한 〈虎圈〉이라는 시에서 우리에 갇힌 호랑이를 垓下에 갇힌 항우에 빗대기도 하였다.[61] 이러한 시선들은 공통적으로 산야에서 야성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맹수들이 그 본연의 야성을 상실한 데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동물희에 동원된 동물들에 대해 연민의 감정, 야성을 억누른 데 대한 불편한 감정과는 다른 종류의 반응을 보인 사례들도 있다. 1859년 1월 23일, 조선관으로 한 戲者가 원숭이 한 마리를 끌고 와 猴戲를 선보였다. 이 猴戲를 본 金直淵은, 주목할 만한 비평을 남기고 있다. 당시 공연에는 개도 등장하였지만 김직연의 비평은 원숭이에 집중되어 있다.

---

58) 金正中, 『奇遊錄』 壬子(1792) 正月十五日條. "行中數十人, 羅立圈邊, 虎驚起三匝, 有時大吼或閃目, 騰身一躍, 幾觸鐵網, 觀之者無不辟易. 噫! 爾是籠中一困獸飛騰高喝, 尙有餘威, 使汝更置山林堀宅, 其雄勇猛健, 當如何哉! 壯士之徒手搏虎, 吾不信也."

59) 李喜經, 『雪岫外史』. "余前日往圓明園觀虎圈, 制甚異焉. 坎地數丈, 四面甓以築之, 上羃銕網, 令人俯視, 旁插銕楹而環之, 以作虎室. 時適虎入其室, 不能得見, 使嗇夫以杖, 從楹隙挑之. 虎奮身大怒, 一咆而躍頭抵銕網, 雙瞳如火, 脣吻渥丹, 人皆辟易, 不敢窺其一斑也."

60) 李喜經, 『雪岫外史』. "嗟乎! 虎之勇, 寧死當如是矣. 彼養於人, 而自以爲哺啜者, 豈非虎之碌碌者乎."

61) 李押, 「虎圈」, 『燕行日記』. "問爾胡爲石檻幽, 向人搖尾亦堪羞. 橫行猛氣還無奈, 楚伯垓城似此不."

> 이윽고 희자가 원숭이에게 명령하였다.
> "머리를 조아리고 재주를 부려 보거라."
> 원숭이는 그새 궤짝으로 가 그 안에서 붉은 두건을 꺼내 쓰고 밤 한 톨을 꺼내 먹었다. 그러고는 삼사 앞으로 와 차례로 머리를 조아리더니 손발을 움직이며 춤을 추고 눈알을 굴리며 머리를 흔드는 것이었다. 갖은 추태를 다 떨어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祝欽明의 八風舞를 이것과 비교한다면 어떨지 모르겠다.62)

원숭이가 삼사 앞에 와 차례로 머리를 조아리고는 기괴한 모습으로 춤을 추는 장면을 보고, 김직연은 祝欽明을 떠올리고 있다. 祝欽明은 五經에 정통한 唐代의 학자였다. 국자좨주로 있던 그가 어느 연회석상에서 황제를 즐겁게 하기 위해 자청하여 八風舞를 추었는데, 머리를 흔들고 눈알을 희번득거리며 온갖 추태를 부려 춤을 추자 황제가 웃었다. 이에 吏部侍郎 盧藏用이 '祝公의 五經이 흔적도 없어 사라졌다.'고 탄식했다.63) 김직연은 원숭이 춤을 보고, 황제에게 아첨하기 위해 체신을 다 버리고 추태를 보인 축흠명을 떠올린 것이다.

김직연이 관람한 이 猴戱에서 원숭이는 이어 장대 위에서 위태롭게 매달려 재주를 부리다가 평지로 내려와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다. 이를 두고 김직연은 "沐猴而冠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구나. 인면수심으로 온갖 아양을 떨어 비웃음을 사는 자들과 이 원숭이가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라 개탄하고 있다.64) 沐猴는 세계적으로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원숭이로, 沐猴而冠은 사람의 갓을 쓴 원숭이처럼, 겉모습은 사람 같지만 사람답지 못함을 비꼬는 말이다. 咸陽을 차지한 項羽가 아방궁을 불살라 함양이 폐허가 되자 자신의 고향 彭城을 도읍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자 韓生이라는 자가 지정학적 중요성과 토지의 비옥함을 들어 함양을 도읍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자 항

62) 金直淵, 『燕槎日錄』 己未(1859) 正月二十三日條. "戱者乃令猢猻叩頭獻技, 猢猻就櫝子, 中探出一赤幘而冠之, 又探出一栗子而食之. 於是, 進伏三使前, 各叩頭三次後, 足蹈手舞, 轉目搖頭. 備盡醜態, 有不忍見, 未知祝欽明八風舞, 較此果如何也."

63) 『資治通鑑』 卷209 唐紀 25. "己卯, 上宴近臣, 國子祭酒祝欽明自請作八風舞, 搖頭轉目, 備諸醜態, 上笑, 欽明素以儒學著名. 吏部侍郎盧藏用私謂諸學士曰: '祝公五經掃地盡矣.'"

64) 金直淵, 『燕槎日錄』 己未(1859) 正月二十三日條. "猢猻懸於半空, 回回旋旋, 惴惴乎, 危哉危哉. 移時後乃止, 一瞥已下, 立平地, 左顧右眄, 傍若無人. 嗟乎, 此所謂沐猴而冠者耶, 獸心人面, 百媚取笑, 奚獨猢猻之爲然也."

우는 錦衣還鄕의 뜻을 내세운다. 이에 한생이 항우를 두고 한 말이 바로 '沐猴而冠'이다. 金直淵은 원숭이가 공연장에서 사람인 양 행동하는 것이 마뜩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온갖 아양을 떨어 비웃음을 사는' 인간들도, 사람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은 짐승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맹수의 野性은 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인간의 통제를 받아 야성을 상실한다면, 맹수는 더 이상 주체적으로 살 수 없게 된다. 원숭이가 아양을 떨며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것도 결국은 길들여져서다. 金正中이나 金直淵 등이 인간에게 통제를 받는 맹수나 인간을 위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일삼는 원숭이를 통해 비판하고 풍자하고자 했던 대상은 결국 주체성을 상실한 인간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사신단을 따라 여러 차례 북경에 갔던 李喜經은 1793년 겨울, 유리창에서 호랑이 공연을 보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고찰한 글을 남겼다. 호랑이가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주인이 호랑이 입안에 머리를 들이미는 장면을 보고 그는 다음과 같은 의문들을 제기한다. 주인은 어떻게 호랑이를 길들였는가, 주인은 어떻게 그 호랑이를 길들일 수 있다고 확신했는가, 주인은 어떻게 호랑이가 자신을 해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했는가 등의 의문이다. 그 과정에서 李喜經이 인간(주인)과 맹수(호랑이)의 가상의 대화를 설정한 점이 무척 흥미롭다. 주인이 집이 가난하여 호랑이에게 묘기를 가르쳐 시장에서 공연하면 주인 자신도 먹고살 수 있고 호랑이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호랑이를 타이르고, 호랑이는 주인의 그 말이 주인에게도 이롭고 자기도 이롭다고 판단하여 포학한 기질을 버리고 고분고분 춤을 익히지 않았을까 했다는 것이다.[65] 여기에 오면 이희경은 인간과 호랑이의 관계를, 단순히 인간 중심으로 동물을 대상화하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글을 보면 이희경은 동물을, 지각

65) 李喜經, 『雪岫外史』. "且其生致之日, 亦何以明知其虎之可馴? 恩結而利道之, 每以諭之曰: '吾今業失工商, 家貲甚貧, 當教汝以技, 日牽於市, 則得錢若干. 吾可以食矣, 汝可以肉矣.' 虎亦何以明知其言之益主而利己也. 猝然變其本性, 盡祛暴虐, 伏侍家庭, 使槍習舞, 無敢違命者, 一如慈父之順孫耶?"

없는 존재이자 통제의 대상이며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가르쳐도 배우지 못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66]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동물을 보고 있는 것이다.

조선에서도 동물을 길들여 공연에 동원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중국만큼 흔치는 않았다. 淸代에는 갖은 동물들을 길들여 공연에 동원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동물희는 幻戱나 燈戱과 더불어 조선 사신단의 주요한 볼거리였다. 더군다나 호랑이나 곰, 원숭이나 양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동물들이 눈앞에서 사람처럼 혹은 사람 뜻대로 움직이는 광경이겠는가. 동물희에 대한 조선 사행원의 인식을 살피는 일은 당시 그들이 연행 과정에서 흥미로운 구경거리의 하나로 동물희를 어떻게 보았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조선후기 문인들이 동물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았는가도 얼마간 가늠할 수 있다. 본고를 통해 우리는 북경에서 이루어지던 동물희를 관람한 조선 사행원이 여러 동물들이 펼치는 진기한 장면들—주로 '사람처럼' 혹은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들—에 흥미를 보이며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혹 그런 장면들에서 동물들의 고초를 외면하지 않고 안타까워하거나, 동물들이 野性을 버린 것을 부조리하게 여기거나, 동물의 사람 흉내에서 인간의 '醜態'를 떠올려 비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기도 하다.

동물, 특히 동물희에 강제로 동원된 동물들에 대해 조선 지식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17-18세기에 활발히 이루어진 人物性同異論爭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기도 하고, 人物性同論의 입장에 있다 해도 현실에서 동물들을 대하는 감수성은 철학적 논의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해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필자는 인성과 물성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홍대용의 인물균의 시각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人性과 物性이 같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대개는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동물을 대상화하는 단계를 넘어서기 어려웠다. 비단 조선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

66) 李喜經, 『雪岫外史』. "大凡畜物之於人, 言之不能聽, 教之不能學, 責之不能改, 雖日撻而求其正, 不可化者明矣."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수가 1,500만이 넘어서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던가를 돌아보면 조선후기 연행록에서 동물에 대해 보이고 있는 인식과 태도에서 크게 나아진 것도 없는 듯하다. 최근까지도 우리는 동물원에서 돌고래쇼를 관람하며 즐거워하였고 그 부조리함은 지금도 여러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연행록에 기록된 수많은 동물희 기사에서 우리는 '사람처럼' 서서 춤을 추거나, '사람처럼' 옷을 입고 '사람 흉내'를 내거나,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박자에 맞추어 움직이는 등 동물들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흥미를 갖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동물을 대상화하고, 배타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손쉽게 비판하고 말 일이 아니다. 오늘날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흔히 접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 조선후기 지식인의 인식과 태도에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사람 말을 알아듣고' 행동하는 동물들을 보고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자기 방어나 생존을 위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데도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그러니 채찍으로 쳐서 길들이고 이빨이나 발톱을 제거하고 쉬지 않고 공연을 하게 해 동물을 고달프게 하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명백한 동물학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이 문제는 조선후기 단계에서의 문제만도 아니다. 동물이 인간의 伴侶로 여겨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물을, 삶을 생생히 느끼는 생명체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대상화하면서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것을 흥밋거리로 삼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동물들, 특히 인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은 통증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낀다. 동물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통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들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다.[67] 이미 그러한 책임을 다하고 동물과 인간의 伴侶의 의미를 충실히 구현한 것으로 보이는 서두의 거지와 원숭이 이야기가, 따라서 오늘날에는 하나의 미담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67) 조너선 밸컴, 『즐거움, 진화가 준 최고의 선물』, 노태복 옮김, 도솔, 2008, 326면.

▮ 참고문헌

『資治通鑑』.

姜長煥, 『北轅錄』, 연행록전집 77, 동국대 출판부, 2001.
金景善, 『燕轅直指』, 한국고전번역원.
金正中, 『奇遊錄』, 한국고전번역원.
金直淵, 『燕槎日錄』, 신익철 역, 의왕향토사료관, 2011.
南公轍, 『日記』, 이시카와 다케요시 도서관 소장본.
朴齊家, 『貞蕤閣集』, 한국고전번역원.
朴趾源, 『熱河日記』, 한국고전번역원.
徐慶淳, 『夢經堂日史』, 한국고전번역원.
李基憲, 『燕行日記』, 연행록전집 65, 동국대 출판부, 2001.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고전번역원.
李時弼, 『소문사설, 조선의 실용지식 연구노트』, 백승호・부유섭・장유승 역, 휴머니스트, 2011.
李 押, 『燕行記事』, 한국고전번역원.
_____, 『燕行日記』, 연행록전집 58, 동국대 출판부, 2001.
李 澹, 『燕途紀行』, 한국고전번역원.
李容學, 『燕薊紀略』, 연행록전집 98, 동국대 출판부, 2001.
李有駿, 『夢遊燕行錄』, 한국고전번역원.
李義鳳, 『北轅錄』, 한국고전번역원.
李海應, 『薊山紀程』, 한국고전번역원.
李喜經, 『雪岫外史』, 아세아문화사, 1986.
任百淵, 『鏡浯遊燕日錄』, 한국고전번역원.
趙秀三, 『秋齋集』, 한국고전번역원.
洪大容, 『湛軒書』, 한국고전번역원.

박희병, 「홍대용 사상에 있어서 物我의 상대성과 동일성」,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신익철, 「연행록에 보이는 동물 기사의 유형과 특징」, 『동방한문학』 제62집, 동방한문학회, 2015, 93-120면.
안대회, 「소사전투에서 활약한 원숭이 기병대의 실체」, 『역사비평』 통권124호, 역사비평사, 2018, 294-323면.
안상복, 『중국의 전통 잡기』, 서울대 출판부, 2006.
_____, 「燕行錄의 雜技 관련 記事 연구」, 『중국문학』 제53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7, 161-184면.
안순태, 「幻戱의 演行 양상과 흥미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78집, 한국한문학회, 2020, 117-147면.
이창숙, 「연행록에 실린 중국 연희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 『한국실학연구』 제20호, 한국실학학회, 2010, 131-175면.
이홍식, 「북경 유리창의 공연예술」, 『한국한문학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11, 1-30면.

조너선 밸컴, 『즐거움, 진화가 준 최고의 선물』, 노태복 옮김, 도솔, 2008.

刘峻骧, 『中国杂技史』, 北京: 文化艺术出版社, 1998.
刘荫柏, 『中国古代杂技』, 北京: 商务印书馆, 1997.
韦明铧, 『动物表演史』, 濟南: 山東畫報出版社, 2005.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https://db.itkc.or.kr/.

【Abstract】

A Study on the Animal Acrobatics Articles in Yeonhaengnok (燕行錄)

An, Soon-Tae*

This paper is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animal acrobatics articles recorded in *Yeonhaengnok* in the latter Joseon dynasty. Also, I'm looking at how Joseon people who saw animal acrobatics show their perception of it.

First of all, I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36 records recorded by 24 people from the mid-17th century to the late 19th century watched and recorded animal acrobatics featuring 9 types of animals. In addition, the pattern of the performance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 monkey show and tiger show, which are frequently identified among the animal acrobatics where various animals appear.

As is the case with the narrative attitude toward the Magic Show (幻戱), the writers of *Yeonhaengnok* usually showed a fragmentary reaction to the novelty of animal acrobatics. However, we can also find some examples of recording the feelings they felt after watching animal acrobatics, which can be summarized into two categories. First, they are those who have pity on the animals participating in the animal acrobatics. Second, it is an example that pointed out the discomfort that the beasts who participated in the animal acrobatics lost their ferocity. In Korea today, 15 million people have pets. However, like the people of the Joseon Dynasty, the human-centered perspective on animals doesn't seem to have changed much.

Keywords: animal acrobatics, monkey show, tiger show, horseback, Hong Dae-yong (洪大容), Kim Jik-yeon (金直淵), Kim Jeong-jung (金正中), wild nature.

접수일: 2020.09.29. ‖ 심사일: 2020.10.07. ‖ 게재확정일: 2020.11.16.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Univ. of Ulsan.